

허 경 옥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귀 영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 귀 영

# 인 준 서

박귀영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가계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두드러진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재무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가계를 적절히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가 재무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러한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가계의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이들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인 위험감수도,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복지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면 가계 구성원인 개인들이 목표하는 재무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의 차이와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가계 경제지표의 차이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과 재무관리행동, 경제적복지감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Window(version 12.0)과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학력, 전문직 종사 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의 위험감수도가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위험감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과 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50대 이상이 20-30대 보다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경우 월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개인의 재무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결혼여부, 주택소유 여부, 전문직 종사 여부, 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주택 소유자, 전문직 종사자, 월 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재무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전문직 종사 여부, 연령, 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20-30대 연령, 월가계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개인의 경제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학력, 주택소유 여부, 연령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졸 이상자, 주택 소유자, 20-30대 연령층의 경제적복지감이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제적복지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첫째, 위험감수도 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에 따른 결과에서는 월지출생활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도가 높아질수록 매월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 저집단과 위험감수 고집단과의 월생활비 차이는 1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상유지편향 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월지출보험료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편향이 높을수록 매월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편향이 낮은 집단은 월 29만원,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매월 52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정보탐색 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월지출보험료와 월저축액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재무정보탐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집단보다 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월보험료로 약 18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정보탐색을 소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보다 매월 약 39만원을 더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무관리실행 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월지출보험료와 월저축액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실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소극적으로 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보험료로 월 13만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무관리실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소극적으로 하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월 약 45만원을 더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적복지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상유지편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재무정보를 탐색하고 재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위험감수도	6
1) 위험감수도의 개념	6
2) 위험감수도 관련요인	12
2. 현상유지편향	13
3. 재무관리행동	15
1)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의 개념	15
2) 재무관리행동 관련요인	17
4. 경제적복지감	18
1) 경제적복지감의 개념	18
2) 경제적복지감 관련요인	20
5. 선행연구 고찰	21
1) 위험감수도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21
2) 위험감수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연구	23
3) 현상유지편향에 관한 연구	32
4)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연구	33

III. 연구방법 .....	34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	34
2. 측정도구의 구성 .....	3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1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41
2) 통계분석방법 .....	41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42
1)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 .....	42
2)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 .....	44
5.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47
IV. 연구결과 및 분석 .....	49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의 차이검증 결과 .....	49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감수도의 차이검증 결과 .....	49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현상유지편향의 차이검증 결과 .....	5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의 차이검증 결과 .....	53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실행의 차이검증 결과 .....	55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의 차이검증 결과 .....	57
2.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결과 .....	59
1) 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	59
2)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	61
3) 재무정보탐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	63

4) 재무관리실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	65
3.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분석 .....	67
V. 결론 및 제언 .....	70
1. 요약 및 결론 .....	70
2. 제언 .....	74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투자성향유형 .....	10
<표2> 재무관리행동유형 .....	16
<표3> 변수의 측정항목 .....	40
<표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43
<표5>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	46
<표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8
<표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감수도의 차이검증 .....	50
<표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현상유지선호도의 차이검증 .....	52
<표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의 차이검증 .....	54
<표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실행의 차이검증 .....	56
<표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의 차이검증 .....	58
<표12> 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	60
<표13>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	62
<표14> 재무정보탐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	64
<표15> 재무관리실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	66
<표16>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67

## 그림 목 차

<그림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효용함수 .....	9
<그림2> 투자자 집단 분류 .....	11
<그림3> 연구모형 .....	37
<그림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45
<그림5>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69

# I. 서론

## 1. 연구배경

개인과 가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이미 7%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0년 545만 명(11%)이었던 고령인구는 2030년 1,269만 명(24.3%)으로 2.3배, 2060년 1,762만 명(40.1%)으로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1). 또한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었고,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조기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 붐 세대의 가계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60년부터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2009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 한국경제학회(2012) 연구 결과에서는 2060년보다 11년이나 빠른 2049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민연금기금 고갈의 최대 변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연금 수급자는 2009년 250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 800만 명에 이어 2046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뉴스투데이, 2012).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령인원과 수령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은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를 보장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의 감소와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로 인하여 노후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철용, 2006). 그 밖에도 가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질병 및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조기사망, 출산률의 급감, 지속적인 저금리와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고용 등과 더불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들의 등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에서 열거된 환경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재무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가계를 적절히 돌보지 않으면 가계가 재무적으로 큰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계의 구성원인 각 개인은 제대로 된 재무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이 책임에 대한 재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투자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투자에 있어 장기, 분산투자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금융투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금융투자협회, 2010). 특히 투자행동에 있어 투자원칙에 따른 실행이 중요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투자원칙을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별로 다른 위험감수도에 대한 인지 및 확인이 중요하다.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위험감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행하여지는 투자행동은 투자에 대한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재무적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에 대한 인지과정이 중요한데 위험감수도는 위험에 대한 태도로써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가계의 재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현자, 2007). 그런데 위험감수도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상황이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위험감수도는 불변의 개인성향이 아니라,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급변하는 시장경제상황은 투자자 개개인의 위험 감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감수도는 투자관리행동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감수도가 가계가 실제로 위험자산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측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바 있다(Barsky, Juster, Kimball, M, & Shapiro, 1997). 또, 위험감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행동 실행 시 위험을 감수하려는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기에 위험감수도와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Yao, Hanna & Lindamood, 2004).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투자가 위험과 수익의 상반관계에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위험감수도를 주로 연구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도가 투자 이외의 재무관련 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투자행동 이외의 재무관리영역에서의 위험감수도의 영향력을 밝혀 개인의 재무관리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투자를 비롯한 재무관리 실행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현재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준거점을 놓고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각적 편향 중 하나가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성립된 행동을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지각적 편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이고, 개인들에게 재무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계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조명을 통해 현상유지편향에 따

라 개인들이 재무정보 탐색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정보탐색을 바탕으로 재무관리 실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행동재무학 영역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제로 연구되는 행동재무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현상유지 편향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가계 주요 경제지표상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 개인의 위험감수도,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 경제적복지감 간의 구조적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며,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가계의 경제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또, 각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향후 개인과 가계가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돕는 기존 금융회사들과 전문 재무설계기업들에게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고객의 재무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계 스스로 각자의 재무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긍정적인 재무관리행동과 재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위험감수도

#### 1) 위험감수도의 개념

위험이란 투자대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대체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행동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의사결정이다(허경옥, 2006). 즉, 손실을 유발하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투자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위험감수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었는데(성지미, 안주엽, 2007; 김민정, 손지연, 최현자, 2007; 김민정, 최현자, 2008) 대표적으로 March, James & Shapira(1987)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개인의 성향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부정적인 결과의 정도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투자자의 위험감수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계의 투자행동은 재무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인데 투자대상의 선택, 안정성과 수익성의 동시 고려, 투자대상의 매입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가계투자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정보탐색으로 투자지식 향상, 위험에 대한 결과예측으로 위험대비 투자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동안 개인의 위험에 대한 수용성향과 태도에 대한 분류와 구분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FP협회(2002)에 따르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

지를 첫째,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자신에게 생산한 상품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며, 셋째, 기존에 손실을 본 상품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관리가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개인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른 성향 분류가 여러 연구자(한민희, 신상근, 안성아, 2000 ; 허경옥, 2006)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한민희 외 2인(2000)는 위험이론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세분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수익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수익상황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반면, 손실상황에서는 위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분산행동이 달라지는데, 위험추구적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높고, 위험태도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유형이 달라지며, 위험추구시장일수록 기대수익 양의 정보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Friend(1975)는 투자자의 위험회피도는 위험감수도로서 투자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개인의 교환의사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투자자산선택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투자위험감수도, 연령, 소득, 투자기간, 투자자산, 투자목적 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return)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적은 부(wealth)보다는 더 많은 부를 선호한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효용(utility)함수는 부의 크기에 대해 기울기가 (+)인 증가함수의 형태를 갖게 된다. 즉, 수익률 혹은 부가 증가할수록 총효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부의 증가에 따라 총효용이 항상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효용함수의 형태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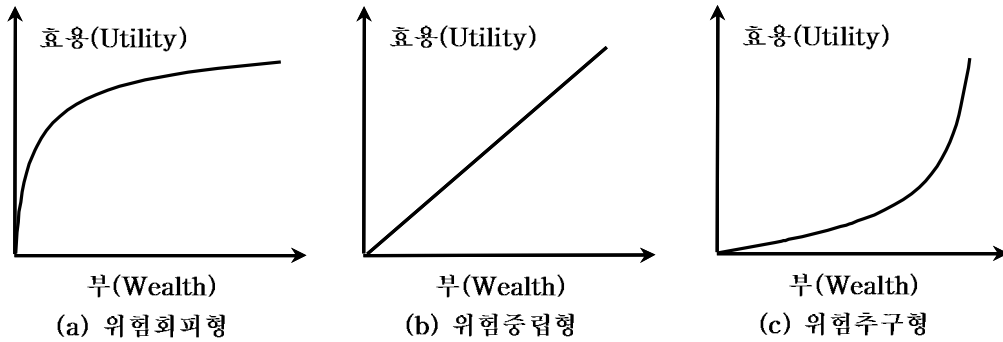
허경옥(2006)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에 따라 투자자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위해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유형으로서 높은 위험을 수용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큰 손실을 볼 가능성 역시 높다. 위험추구형은 기대수익이 한 단계 증가하였을 때 그 이상의 위험증가가 있어도 만족하게 된다.

두 번째,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능한 한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를 작게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 즉 위험 프리미엄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감수하려하지 않는다.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이보다 더 큰 기대수익의 증가가 있어야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수익의 증가에 따라 한계효용이 체감하는데,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대수익을 희생시킨다. 즉, 기대수익이 작더라도 위험이 작은 것에 따른 심리적 효용, 만족이 크기 때문에 낮은 기대수익으로 인한 효용의 감소를 상쇄하게 되어 기대수익이 낮은 투자안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형은 보통 분산투자를 많이 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킨다. 위험회피형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하는데 보통 1 만원의 손실에 두 배 정도 더 싫어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위험회피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한다면,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의 기대수익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험중립형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 혹은 기대하는 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이들의 한계효용은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하며, 수익률에 의해서만 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위험중립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똑같은 수준의 기대수익이 증가한다면 동일한 만족을 느낀다. 즉,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에 의해서

만 의사결정을 하는 가계로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그림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효용함수



위험감수도는 투자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투자결정의 선택에 놓였을 때 수익성과 안정성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변수이다. 이러한 개인의 위험감수도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연속선상에 위치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투자결정성향에 대한 유형 구분은 표준투자원칙에 의하여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로 분류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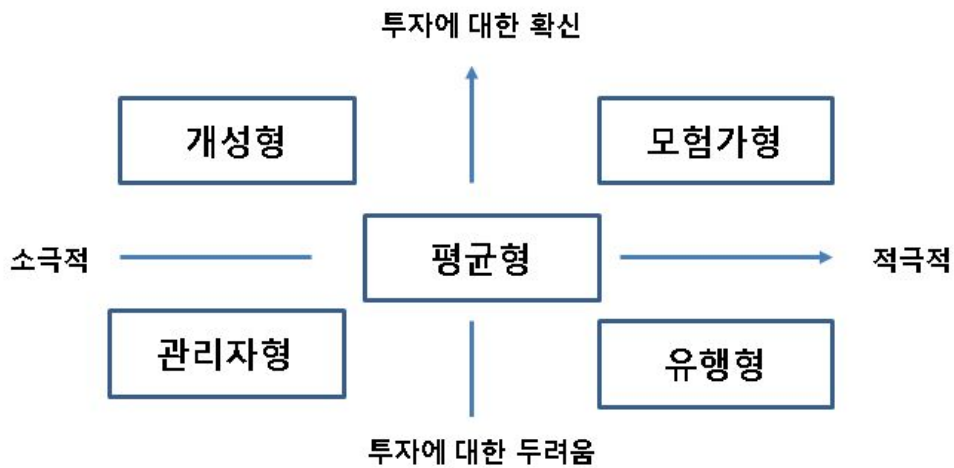
<표1> 투자성향유형

유형	정의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시 투자원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시 투자원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투자시 투자원금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여,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의 Bailard, Biehl & Kaiser사는 투자에 대한 확신정도와 행동양식에 따라서 투자자를 개성형, 관리자형, 유행형, 모험가형, 평균형 5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개성형은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는 집단으로, 고유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며,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관리자형은 재산의 보전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며,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금이나 적금, 단기채권 투자가 바람직하며 주식투자도 주식편입 비중이 낮은 안정형 펀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행형은 대중적인 인기를 쫓아 투자하는 형태로 개인적

인 투자원칙이나 판단이 없는 경우이다. 투자에 적극적이면서도 두려움이 많아 중개인에게서 좋은 고객이지만 투자 성공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핵심적인 투자자산은 체계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모험가형은 투자에 대한 확신과 기업가적인 적극성을 나타낸다. 투자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유형이며, 분산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평균형은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투자자이다.

<그림2> 투자자 집단 분류<sup>1)</sup>



1) Bailard, Biehl & Kaiser(BB&K)사의 투자자 집단 분류

## 2) 위험감수도 관련요인

개인의 위험감수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특성, 가계의 재무관련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결과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연령이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으면 위험감수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정은주, 문숙재, 1992; 정은주, 1992; 이진형, 2008; MacCrimmon & Wherung, 1990; Morin & Suarez, 1983), 연령과 재무위험감수도가 역 U자형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Grable, Joo & Adityavarman, 2003)이 있다. Bertaut & McCluer(2000)의 연구에서도 49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49세보다 연령이 높아질 경우 그 패턴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성별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정은주, 1992, Bajtelsmit, Bernasek, 1996). Graham & Stendardi(2002)의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투자 의사결정 스타일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중요한 한두 가지 단서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힌연구(이진형, 200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위험회피적이며, 중간 소득층이 위험추구적이라고 밝힌 연구(정은주, 1992)가 있다. 그 밖에 이진형(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한 가계, 기혼일수록 위험회피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위험자산보유 비율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와 위험자산 보유 비율과의 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나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대졸자가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반면 석사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현상유지편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심리를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라고 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보다 선호하는 현상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처리를 항상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늘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매일의 일과가 큰 변화 없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다. 행동적 의사결정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현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은 선택 대안의 기대효용에만 기초하여 선택결과를 예측하는 합리적 선택모형과 배치되는 것이다(Samuelson & Zeckhauser, 1988).

현상유지편향은 손실회피(loss aversion)와 후회회피(regret aversion)라는 두 가지의 심리적 기제로 설명된다. 손실회피란 선택 대안을 준거점과 비교하여 불리를 손실(loss)로, 유리는 이득(gain)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함수가 이득보다는 손실부분에서 더 가파르고 손실이 상응하는 이득보다 과대평가된다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매력도를 갖는 선택 대안들 간에 전환을 해야 할지 여부를 높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현상 대안이 준거점이 되고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잠재 이득보다 더 크게 평가하므로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박세훈, 김문용,

2007). 후회회피는 사람들이 무위(inaction)보다 행위(action)를 할 때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더 큰 후회와 책임감을 느낀다는 부작위적 편향(omission bia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Bell, 1982; Ritov & Baron, 1995; Simonson, 1992). 부작위적 편향은 부작위가 작위보다 의사결정 결과의 원인으로 덜 여겨지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더 작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므로, 부작위가 더 신중한 선택 대안임과 동시에 규범 내지는 기본설정 대안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기본설정 대안인 현상대안과 또 다른 대안 간의 선택에 있어서 현상대안을 선호함으로써 예상된 후회와 책임감을 더 작게 느끼기 때문에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 재무관리행동

#### 1)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의 개념

재무관리행동은 주로 가계재무관리행동으로 연구되어 왔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가 자산증식이라는 최종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자원을 할당하는 관련 계획이나 실천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며(박근주, 이기춘, 200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재무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의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8). 이기춘 외(1998)에 의하면, 가계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경자(2003)는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해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며 또한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 수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2008)는 가계재무관리행동을 가계의 현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가족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이것의 달성을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 수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Gunnarsson & Wahlund(1997)는 스웨덴 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을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는 잔여저축형(자산/부채 거의 없고 유동적 저축보유, 중

장기적 저축계좌나 고위험 금융상품 거의 보유 없음), 강제저축형(다양한 형태의 부채 보유, 부채중 담보부채 많음), 보장저축형(은퇴 관련 금융상품과 채권 투자 함), 투기형(고위험 장기성 자산 투자,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 관련 지식 많음), 신중투자형(여러 유형의 저축에 투자, 고위험자산회피, 채권 선호), 다양형(특수하며 전문적 고위험자산에 투자)이다.

한편,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의 영역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은 재무관리 행동을 재정계획행동, 저축행동, 구매행동, 자녀용돈교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홍향숙, 이기춘(1999)은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관리영역별로 구분하여 <표2>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표2> 홍향숙, 이기춘(1999)의 재무관리행동유형

소득 관리행동	1)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 3)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 5) 소득의 적절성 평가	2) 가계소득 원천 다양화 계획수립 4) 업무관련 기능 습득정도 점검
세금 관리행동	1) 절세관련 정보수집 3)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 5) 절세방법 이용의 평가	2) 연간 세금납부 계획수립 4) 세금부과 내역 및 연체여부 확인
지출 관리행동	1) 지출관련 정보수집 3) 지출내용 및 지출액수의 기록 5) 지출내용 결산 및 평가	2) 매월 고정 및 변동지출액 계산 4) 변동지출의 사용 점검
투자 관리행동	1) 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3)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5) 투자방법의 적절성 평가	2) 투자목표의 설정 4) 이자율 고려 금융상품선택
부채 관리행동	1) 부채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3) 월부채상환의 확인 5) 1년 단위로 부채상환 결과 평가	2) 월 신용카드 부채액 관리 4) 대출자격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위험 관리행동	1) 보험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3) 보험가입 5)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평가	2) 위험대비책 마련 주요목표 설정 4) 월보험료 납입 확인

홍향숙, 이종혜(1999)에 따르면 재무관리행동을 자산 및 지출기록, 신용관리, 위험관리, 소비습관 검토 등 여러 하위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그 행동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라 하였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 재무관리 측면에서 계획과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가계의 재무관리를 분석한 Titus & Hira(1989)은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가계의 재무관리를 다루면서 변환과정이 실제적인 재무관리로 구성되며,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여부는 재정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계가 재정자원사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계의 만족 혹은 효용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계 재무관리행동은 가계복지나 재정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Fitzsimons, Hita, Bauer & Hafstrom, 1993).

## 2) 재무관리행동 관련요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 구성원에 대한 재무자원의 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이기에 가계 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관,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는 행동이다. 행동양식에는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가족원간 역할 분담,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자원배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갈등해결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이 행동 방식별로 행동 성과를 측정하면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과 같은 대체변인보다 재무자원과 재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김경자, 박명숙, 정운영, 2002).

Titus 등(1989)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지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계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계관리지식이 많을수록 계획을 많이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Titus 등, 1989;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8)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계관리지식, 경제적 기대감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4. 경제적복지감

##### 1) 경제적복지감의 개념

경제만족은 복지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하며 행복한 상태 혹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적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걱정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Walson & Fitzsimmons, 1993), 가계관리자들이 가계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산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경제적복지의 개념은 경제적복지가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화폐측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고 한 Pigou(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그 이후 Weckstein(1962)는 경제적복지를 희소한 자원에 의해 충족된 욕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Fowler(1972)는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로 Strumpel(1973)는 주관적인 경제복지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 효율감(self efficiency), 운명통제력(fate-control), 가치를 고려하여 현실과 목표 사이의 차이로 보았으며 그 차이가 적을수록 복지감은 높다고 하였다. 또, 개인의 경제적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는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한다고 밝혀진 연구도 있다 (Campbell, Converse & Rodger, 1976). Walson(1991)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는 전반적 복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걱정감 및 안정성이라고 하였다.

경제적복지감의 하위개념으로는 소득걱정감(Hafstrom & Dunsing, 1973)과 소득향상감 그리고 소득안정감(Davis, E.P. & Helmick, S.A., 1985)이 있다. 소득걱정감은 현재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뒷받침 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정도를 의미한다.

소득향상감이란 현재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몇 년 이내에 더 향상될 것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평가정도를 의미하며 가정경제안정감이란 현재의 경제생활수준을 어떠한 변화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에 대한 평가정도를 의미한다. 세 가지 하위개념 중 소득걱정감과 안정감에 대한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효용론자의 관점에서 걱정도는 소비표준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함수이며 경제적안정도는 가계의 소비표준에 대한 소비수준의 비례함수이다. 즉, 어떤 걱정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계가 반드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 걱정감과 안정감이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둘의 개념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다(이경옥, 2000).

## 2) 경제적복지감 관련요인

경제적복지감에 있어 연령은 주부의 연령 및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홍향숙, 1999). 반면 김연정, 김순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복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계선자, 1999; Walson & Fitzsimmons, 1993). 가계소득이 경제적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 연구(계선자, 1999; 황덕순, 정운영, 2001)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다.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 전문직일 때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문제의 경험을 적게 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 1999; 이경옥, 2000).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전세나 월세의 가계보다도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계선자, 1999)

그 밖에 Deacon & Firebaugh(1988)은 경제적복지감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성취되므로 지나친 욕구의 억제는 경제적 복지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Davis & Helmick(1985)는 미래지향적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므로 경제적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5. 선행연구고찰

### 1) 위험감수도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관리 또는 투자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 및 투자에서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투자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의 위험감수도의 수준이 중요하다. 문숙재, 양정선(1996)은 불확실성 하에서 가계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첫째, 기대수익가설로서 가계가 주어진 여러 가지 대안 중 기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가설로 현실에서 위험과 기대수익 간에 상반되는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대효용가설으로써 기대효용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데, 이 때 투자대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가계의 현재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투자대안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Von-Neuman, Morgenstein이 확립하였다(문숙재, 1996; 재인용).

Xiao, Hong & Haynes(2001)는 위험감수행동을 총자산대비 위험자산의 비율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과 가구크기는 위험감수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순자산은 위험감수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자가소유는 위험감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은주(1992)는 위험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도시가계는 위험회피형이 많고, 위험태도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소득, 부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이 더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위험회피적이며, 중간소득층은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형(2008)은 위험회피도에 따른 위험금융자산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위험회피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도가 증가할수록 위험금융자산 보유액 증가율은 감소하여, 위험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은 고졸이하보다 위험자산보유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피라미드 모델은 위험/수익성 측면에서 가계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준다(Weagley & Gannon, 1991).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의 기본 전제는 안전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여 다양화한 다음,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축적된 안전한 가계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가계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위험자산의 양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된다.

한민희 외 2인(2000)은 위험이론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세분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수익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수익상황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반면, 손실상황에서는 위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분산행동이 달라지는데, 위험추구적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높고, 위험태도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유형이 달라져, 위험추구시장일수록 기대수익 양의 정보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개인의 위험감수도는 재무관리행동 영역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 2) 위험감수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연구

김민정 외(2008)는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안정추구형 은퇴자의 금융자산과 자가 외 부동산자산액이 모두 20%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위험추구형 은퇴자의 자산액 변화율은 안정추구형 은퇴자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정추구형과 위험추구형의 은퇴자가 자산증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증가가 투자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민정 외 2인(2007)는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도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비교 분석하였다. 직업안정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컸으며,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산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포트폴리오 구성요소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은행예금 보유율은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채권·신탁 보유율은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도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보험 보유율은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도가 모두 높은 집단이 직업안정성은 높지만 위험감수도가 낮은 집단보다 더 높았다.

Wachter & Yogo(2007)는 위험자산 중에서 특히 주식에 중점을 두어 주식의 비중과 부의 관계를 밝힌 결과, 부와 주식의 비중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교육수준이 같다면 부가 클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Wang & Hanna(2007)는 위험감수행동을 주식의 소유여부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주식을 소유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는데 있어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

의 경우 45세까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45세 이상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위험감수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혼가계는 기혼가계보다 주식을 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분의 소득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자가를 소유하는 것이 주식소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 외(1996)은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시 거주자일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봉급생활자일수록, 자가 소유자일수록 위험자산 투자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유형별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위험자산은 자산소득, 이전 및 기타소득이 증가할수록 투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자산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자액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에 비해 농림수산업자의 투자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 및 기타소득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영, 이연숙(1999)은 가계자산 보유액과 구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예·적금 투자액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액수가 많아졌으며, 신탁상품 투자액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자산과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투자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자산의 비율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졌으며, 보험 비율은 비근로소득과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비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낄수록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윤경, 정순희(2004)는 가계가 주식투자를 할 가능성과 주식투자액수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정요인들이 상당히 유사함을 나타냈다. 총저축자산액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대학원을 졸업한 가계일수록, 연간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총부채액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주식 투자가능성 및 투자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직업이 무직인 가계에 비해 자영업자 가계일수록, 자가 소유 가계에 비해 월세와 기타 형태의 가계일수록 주식투자 가능성 및 투자액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목(2004)은 1993~1998년에 조사된 한국가계패널을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은 연령별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나 금융자산규모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계가 무주택 가계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계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n, Lewell, Leuse & Schlumbauma(1975)는 개별투자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포트폴리오 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 및 부가 증가할 때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자금이 여유가 있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총자산, 연령, 직업, 가족수는 위험자산 투자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lume(1975)은 개별 투자자들의 위험부담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추구적 투자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Weagley & Gannon(1991)은 Missouri 지역의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수준에 따른 위험자산 보유비중을 연구한 결과, 자산수준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피라미드 모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aswami 외(1992)는 가계포트폴리오와 재무목표, 투자자의 특성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가계포트폴리오 보유 여부(요구불예금 및 저축성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및 단기 시장금리부 예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생명보험, 주택, 연금,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자산이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가 없는 형성기 가계보다 퇴직 가구주 가계의 생명보험 보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퇴직 가구주 가계일수록 주식보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자녀가 없는 퇴직 가구주 가계의 채권보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Davis(1993)는 미국의 1983년 소비자재정조사(SCF)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퇴직연금,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주식, 단기금융시장계정 등 7개의 금융자산 보유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계일수록 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 교육수준 및 소득제곱변수가 모든 유형의 자산보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가계일수록 요구불예금 보유가능성이 높았고,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식보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ner & Cramner(1995)의 연구는 자산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 보유액, 위험자산 보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Zhong&Xiao(1995)의 연구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주식보유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Xiao(1995)는 소비자포트폴리오 구성요소 수요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험자산(주식, 채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과거에 다양한 안전자산을 보유한 경향이 있었으며 둘째, 장기재무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산형태를(IRA) 보유하는 가계는 단기재무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산과 위험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은행의 단기금융상품(은행저축성예금, 은행요구불예금)과 증권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MMA)간에 대체성이 존재하였다. 소비자가 자산의 위험수준과 장단기 재무목표를 고려하여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요 간에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Xiao(1996)는 금융상품별 수요에 대해 연구한 결과, 요구불예금은 미혼가계에 비해 기혼가계일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예금은 기혼가계일 경우, 중간연령층 가계에 비해 6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일 경우 보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기혼가계일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가능성이 높았다. 주식은 기혼 가계일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taut & McCluer(2000)는 각 자산을 안전자산(safe asset), 준 안전자산(fairly asset), 위험자산으로(risky asset) 분류하고 이들의 합을 분모로 사용하여 위험자산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다시 금융자산으로서의 좁은 범위의 위험자산과 투자부동산과 개인사업을 (private business)포함한 넓은 범위의 위험자산 두 가지로 분류하여 위험자산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위험자산의 범위에 상관없이 순자산이 많은 계층일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은 크게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결혼, 성별, 로그소득, 로그 총자산이 위험자산의 소유여부와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Campbell(2006)은 총자산을 안전자산, 자동차(vehicle), 부동산(real estate), 주식 및 유가증권(stock and public equity), 개인사업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총자산 계층별 각 자산의 비중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가 작은 가계일수록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가 투자활동을 하는데 있어 범하는 하나의 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가 많을수록 위험이 큰 개인사업과 주식 및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밝혀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에 따라서 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최경아(2001)는 가계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수요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자산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결정요인은 순자산,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교육년수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분산투자의 정도는 거래비용이 그리고 교육변수를 통해서 정보집약적인 자산의 경우 정보비용이 자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산선택 후 자산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순자산의 경우 부동산과 사채를 제외하고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년수는 정보집약적 자산인 주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연령은 예금, 사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구주의 직업은 자산보유액을 결정하는 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영(2004)은 15개 자산과 부채의 보유여부를 군집 분석하여 잔여저축형, 비제도형, 은행중심형, 부동산형, 다양형의 5개의 재무전략유형을 도출하였고, 1년 후의 재무성과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잔여저축형의 경우 월평균총소득이 적을수록, 은행예금, 기타금융자산이 많고, 부동산을 임

차할수록, 금융기관·사채·기타부채가 적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았다. 비제도형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많을수록, 금융기관·사채부채가 적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았다. 은행중심형은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많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았다. 부동산형은 저축성보험,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많을수록, 금융기관·사채부채가 적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았다. 다양형은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을수록, 주식·채권·신탁,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많을수록, 금융기관·사채부채가 적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유경원(2004)은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자산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가계의 금융자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예비적 자산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위험을 추정하여 안전 및 위험 금융자산 보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산수익률, 가계 소득위험,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등이 금융자산 보유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금융자산 보유의 경우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그 비중이 높은 반면 위험 금융자산인 주식의 보유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예비적 자산선택이론의 예측과 일치한다.

최지은(2004)은 자산수준별 소비자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행동을 분석하였다. 투자대안별 투자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자산 소비자는 저축 및 신탁, 유가증권 등과 같은 비교적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인 반면, 저자산 소비자는 저축성보험과 요구불예금의 투자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금융자산대비 이자배당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1995년에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나타냈으나, 2000년에는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결과로 금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고자산 소비자들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저자산 소비자들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지은, 정순희, 여윤경(2005)은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파악하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수익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자산 계층의 소비자들은 안전한 저축형 투자대안에, 고자산 계층의 소비자들은 위험한 투자대안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산 계층의 가계는 저자산 계층의 가계에 비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약 100배 이상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트폴리오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구주 연령과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가구주의 가계는 포트폴리오 수익이 낮았다. 가구주의 직업이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무직인 경우가 포트폴리오 수익은 낮았고,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에 비해서 광역시인 경우가 포트폴리오 수익이 낮았다.

권지현(2006)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위험을 추정하여 안전금융자산 보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안전금융자산 비중 추정식 결과,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안전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위험에 대한 추정계수들이 전체자산대비보다 금융자산대비경우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가구주의 나이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대부분 U자 패턴을 보였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안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동성에 대한 예비적 수요이론이 언급하듯이 자산보유에 있어서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가계가 안전 및 유동자산의 보유를

확대한다는 점과 일치한다.

정운영(2008)은 가계의 총 금융자산에 대한 각 금융자산 비중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은행예금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에서는 양의 값을, 연령의 제곱에서는 음의 값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 연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신탁의 보유비중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식과 채권이 매우 정보에 민감한 자산이므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정보력이나 금융지식에의 접근용이성 측면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축성보험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 연소득이 적을수록 보유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 인적자본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보험을 가지는 것과 상반되며 우리나라는 저축성보험이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위험감수도가 자산 및 상품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위험감수도는 개인과 가계의 자산증식과 관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험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증을 통해 가계가 재무적으로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현상유지편향에 관한 연구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적 편향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성립된 행동을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현상유지편향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서 관찰되고 이용되고 있다.

Samuelson & Zeckhauser(1988) 연구를 통해 삼촌이 물려준 거액의 유산 운영방법에서 현상유지편향 특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삼촌이 죽기 전에 운영하던 포트폴리오 방법을 알려주면 그와 똑같은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위험수용성향과 상관없이 삼촌이 하던 방법으로 유산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즉, 유산을 현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물려받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Kahneman, Knetsch & Thaler(1990)은 대학의 로고가 붙어있는 커피 머그잔을 학생들이 사고파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머그잔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높은 매도가격을 부여하는 반면, 머그잔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낮은 매수가격을 부여하여 실제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소유효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Furche & Johnstone(2006)은 주식투자에서 소유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호주 증권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도호가보다 매수호가보다 시장가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수량의 거래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기관투자자보다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보유효과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변화하기를 꺼려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된다. 항상 같은 거래를 한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주소현, 2009). 따라서 개인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연구

경제적복지감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계소득 적절도와 가정경제문제 경험빈도를 조사하여, 그 가정의 경제 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김민정, 1984; 임정, 1988; 김연정, 1991; 임정빈, 고보선, 1995)가 있다. 둘째,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가정경제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김경자, 1993; 이종혜, 1993)가 있고, 셋째, 이미 설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정경제 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김경자, 1993)가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 적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 자산, 부채, 현생활수준의 유지능력 등을 기초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김시월, 1999).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의 경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정경제안정도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측정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인 변인에 대한 가계 관리자의 주관적 경제안정도 인지가 복지감에 보다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가계의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과 가계 재무관리행동(재무정보탐색, 재무관리실행), 경제적복지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위험감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재무정보탐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복지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따라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에 따라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개인의 재무정보탐색에 따라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4.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에 따라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과 재무관리행동, 경제적 복지감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3>와 같으며, 변인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되었다. 위험감수도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문숙재, 양정선, 1996 ; 한민희 외 2인, 2000 ; 이진형, 2008)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계의 위험자산 보유 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안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험감수도가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 1, 3]을 설정하였다.

현상유지편향은 기존 선행연구(Samuelson & Zeckhauser, 1988 ; Kahneman, Knetsch & Thaler, 1990)에 따라 현상유지편향이 높을수록 현상에 대한 유지 성향이 높기 때문에 재무관리영역에 대한 정보탐색과 실행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연구가설 2, 4]를 설정하였다.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김경자, 1993 ; 이종혜, 1993 ; 김시월, 1999)을 통해 밝혀진 개인의 재무관련 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을 포함하는 가계재무관리행동이 개인의 경제적 복지감에 주는 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에서도 밝히기 위해 [연구가설5, 6]이 설정되었다.

[연구가설1] 위험감수도는 재무정보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현상유지편향은 재무정보탐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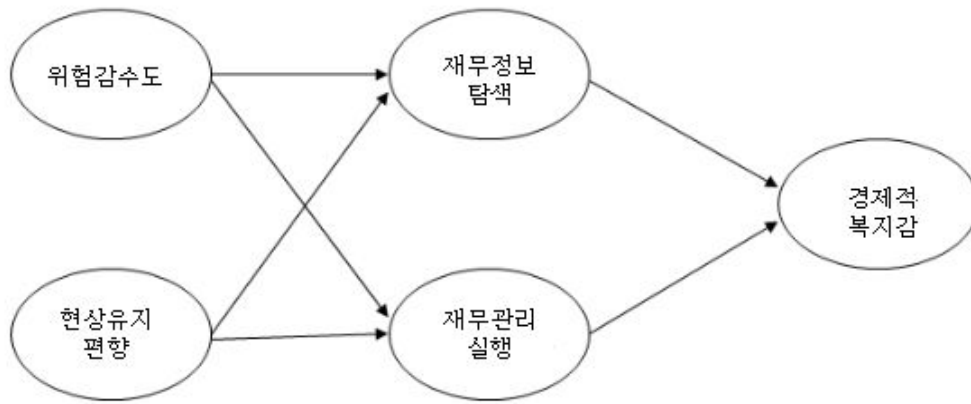
[연구가설3] 위험감수도는 재무관리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현상유지편향은 재무관리실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5] 재무정보탐색은 경제적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6] 재무관리실행은 경제적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3> 연구모형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에 관한 문항, 재무관리행동(재무정보탐색, 재무관리실행)과 경제적복지감에 관한 문항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표3>와 같다.

### (1) 위험감수도

위험감수도는 재무위험수용성향의 개념으로 위험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부정적인 결과의 정도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기존 선행연구(March & Shapira, 1987 ; 허경옥, 2006, FP협회, 2002)를 토대로 위험감수도와 관련된 총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위해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유형으로 정의되며, 위험감수도가 낮을수록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능한 한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는 유형이다.

### (2) 현상유지편향

현상유지편향이란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적 편향으로 현재의 성립된 행동을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기존 선행연구(Samuelson & Zeckhauser, 1988; Kahneman,

Knetsch, & Thaler, 1990)를 토대로 총 2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 (3) 재무관리행동

재무정보탐색은 가계가 재무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존 선행연구(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8 ; 김경자, 2003)를 토대로 총 4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재무관리실행은 가계가 자산증식 및 재무만족도 향상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자원을 할당하는 관련 계획이나 실천행동으로 정의된다. 기존 선행연구(이기춘 외 5인, 1998 ; 정미선, 2008 ; 김경자, 2003)를 토대로 재무관리행동을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4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 (5) 경제적복지감

경제적복지감란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걱정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김정숙, 1996, 김경자, 2003, 이종혜, 1993)를 토대로 총 3개의 관련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표3> 변수의 측정항목

측정변인	측정항목
위험 감수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하겠다.</li> <li>2.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15% 떨어지면, 나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같은 종목의 주식을 더 매수한다.</li> <li>3. 나는 고수익과 고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을 선택하겠다.</li> <li>4. 주식이 대폭 떨어지면 주식투자를 새롭게 시작하겠다.</li> <li>5. 간접투자인 펀드가입보다는 직접투자인 주식투자를 선호한다.</li> </ol>
현상유지 편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번 투자계획을 세우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편이다.</li> <li>2.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현재 투자방법을 바꾸지 않는다.</li> </ol>
재무 정보 탐색 관 리 행 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말정산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li> <li>2. 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꼭 확인한다.</li> <li>3. 금리 변동을 꼭 확인한다.</li> <li>4.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금액과 시기에 대해 확인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li> <li>2. 대출, 용자, 신용카드 할부금 등을 계획대로 갚고 있다.</li> <li>3.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li> <li>4.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li> </ol>
경제적 복지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구나 이웃과 비교할 때 우리집의 경제 생활수준에 대해 만족한다.</li> <li>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상황은 된다.</li> <li>3.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에 만족한다.</li> </ol>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개인의 위험감수도,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 경제적복지감 등의 측정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8월 1일부터 15일간 2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결과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9월, 1달간 실시하였다.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24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의 목적에 맞추어 SPSS Window(version 12.0)과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또, 개인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에 따라 가계의 경제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구성변인들의 유형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측정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알파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모수 추정에는 공변량계수 메트릭스를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였다.

####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1)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요인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일 차원성(Unidimensionality)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스크리 검사, 적재값, 요인해석의 적절성을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구성개념들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 내적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4>과 같다. 구성변인들은 총 분산의 70%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0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나 전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alpha$	
위험 감수도	1. 나는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707	2.465 (17.32)	.65	
	2.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15% 떨어지면, 나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같은 종목의 주식을 더 매수한다.	.641			
	3. 나는 고수익과 고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을 선택하겠다.	.687			
	4. 주식이 대폭 떨어지면 주식투자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649			
	5. 간접투자인 펀드가입보다는 직접투자인 주식투자를 선호한다.	.713			
현상유지 편향	1. 한번 투자계획을 세우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편이다.	.756	2.652 (17.02)	.62	
	2.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현재 투자방법을 바꾸지 않는다.	.716			
재무관리행동	재무정보탐색	1. 연말정산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742	1.942 (15.10)	.71
		2. 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꼭 확인한다.	.736		
		3. 금리 변동을 꼭 확인한다.	.665		
		4.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금액과 시기에 대해 확인한다.	.685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실행	1.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713	2.135 (15.13)	.69
		2. 대출, 융자, 신용카드 할부금 등을 계획대로 갚고 있다.	.765		
		3.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785		
		4.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	.694		
경제적 복지감	1. 친구나 이웃과 비교할 때 우리집의 경제 생활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804	1.822 (13.01)	.85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상황은 된다.	.728			
	3.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에 만족한다.	.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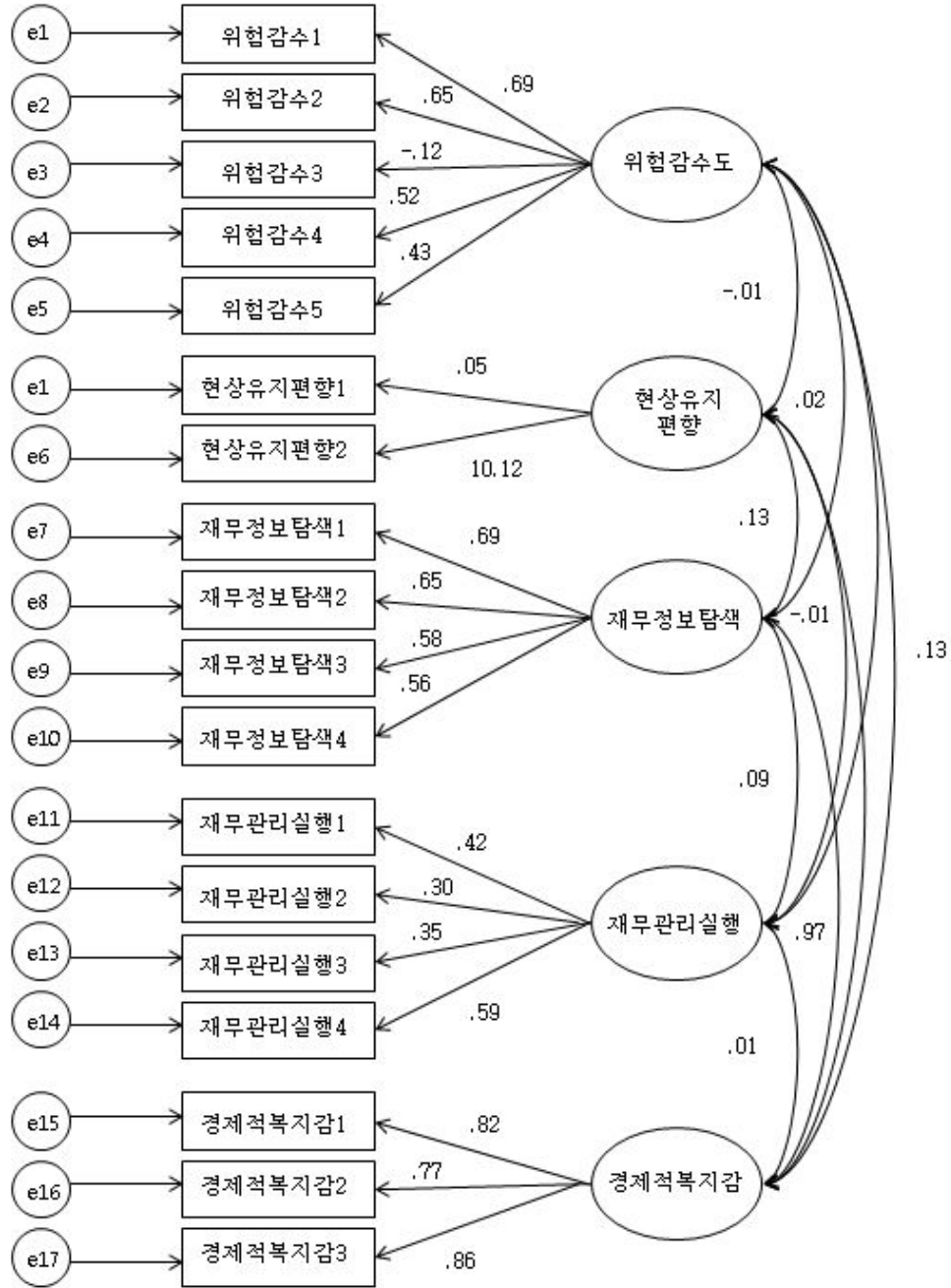
## 2)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앞서, 구성개념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1차 분석을 거친 측정항목들에 대해 AMO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주로 잠재변인과 이를 구성한 관측변인의 구성이 적합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송지준, 2009).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한 결과는 <그림4>, <표5>와 같다.

분석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의 적합도는 GFI=.925, AGFI=.888, NFI=.855, CFI=.921, RMR=.075, RMSEA=.063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델적합도 평가결과를 나타냈다(Tucker & Lewis, 1973; 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치(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표준부하량이 요인적재치를 의미함)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 $t > 1.96$ )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 Gerbing, 1988), 잠재변인과 관측변인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 $p < 0.05$ ), 표준부하량 역시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관측변인은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5>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측정모델		표준화 추정치	t값	p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	
위험감수도	위험감수 1	.69	1.502	0.000	0.72	0.52	
	위험감수 2	.65	1.360	0.000			
	위험감수 3	-.12	-.251	0.000			
	위험감수 4	.52	1.296	0.000			
	위험감수 5	.43	1.000	0.000			
현상유지편향	현상유지편향 1	.05	.005	0.000	0.70	.051	
	현상유지편향 2	10.12	1.000	0.000			
재무관리 행동	재무정보탐색	재무정보탐색 1	.69	1.247	0.000	0.83	0.43
		재무정보탐색 2	.65	1.252	0.000		
		재무정보탐색 3	.58	.901	0.000		
		재무정보탐색 4	.656	1.000	0.000		
	재무관리 실행	재무관리실행 1	.42	.766	0.000	0.73	0.65
		재무관리실행 2	.30	.487	0.000		
		재무관리실행 3	.35	.782	0.000		
		재무관리실행 4	.59	1.000	0.000		
경제적복지감	경제적복지감 1	.82	.970	0.000	0.69	0.45	
	경제적복지감 2	.77	.879	0.000			
	경제적복지감 3	.86	1.000	0.000			

개념신뢰도(C.R)=(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측정변인의오차항)] $\geq$ 0.7

평균분산추출값(AVE)=(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측정변인의오차항)] $\geq$ 0.5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에서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247명으로 이중 남성이 61%인 151명, 여성이 39%인 9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세로 4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28%, 50대 이상이 23%, 20대가 19%로 가장 적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7%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 이하가 33%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자가 76%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3/4 이상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소유자가 52%로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13%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계의 가구원수는 4명 이상인 가계가 63%로 절반 이상이 4인 이상 가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수도권에 20%, 중소도시에 14%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계월소득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가계가 29%, 201-300만원인 가계가 25%, 301-500만원인 가계가 29%로 절반 이상의 가계가 2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월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1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진 가계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51 (61.1)
	여자	96 (38.9)
연령 (M=38.43 S.D.=10.55 )	29세이하	47 (19.0)
	30-39세	69 (27.9)
	40-49세	74 (30.0)
	50세이상	57 (23.0)
학력	고졸 이하	81 (32.8)
	대졸 이상	166 (67.1)
결혼 여부	미혼	59 (23.9)
	기혼	188 (76.1)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118 (48.1)
	소유	128 (51.8)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152 (86.9)
	전문직	23 (13.1)
가구원수	4명 미만	91 (36.8)
	4명 이상	156 (63.2)
거주지역	서울강남	53 (21.5)
	서울강북	109 (44.1)
	수도권	50 (20.2)
	중소도시	35 (14.2)
월가계소득 (M=377.39 S.D.=491.70)	200만원이하	53 (28.8)
	201-300만원	46 (25.0)
	301-500만원	54 (29.3)
	501만원이상	31 (16.8)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의 차이검증 결과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감수도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감수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전문직 종사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7>과 같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감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위험에 대한 감수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준영, 정지영(2011)은 간접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직접투자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자가 고졸 이하자보다 더 위험에 대한 감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진형(2008)의 연구에서 대졸자보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감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위험감수에 대한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 여부에 따라서는 비전문직보다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위험에 대한 감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감수도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위험감수도
		평균 (S.D)
성별	남자	2.68 (.62)
	여자	2.48 (.59)
	t값	-2.52*
학력	고졸이하	2.31 (.61)
	대졸이상	2.68 (.58)
	t값	-4.50***
결혼 여부	미혼	2.63 (.53)
	기혼	2.54 (.63)
	t값	.93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2.53 (.58)
	소유	2.59 (.64)
	t값	.74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2.42 (.60)
	전문직	2.58 (.66)
	t값	-1.43*
연령	29세이하	2.53
	30-39세	2.54
	40-49세	2.57
	50세이상	2.63
	F값	.27
월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23 a
	201-300만원	2.50 ab
	301-500만원	2.60 b
	501만원이상	2.63 b
	F값	1.06

\* p < .05    \*\* p < .01    \*\*\* p < .001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현상유지편향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현상유지편향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월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대의 경우 현재 실행하고 있는 투자방법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 변경할 의사가 40-50대와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40대의 경우 근소소득 수준이 일생 중 가장 높은 시기이나 향후 본인의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방법에 대한 선부른 변경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50대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로 제대로 된 은퇴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새로운 투자대안에 대한 도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는 500만 원 이상의 월 가계소득을 가진 집단의 현상유지편향이 가장 높아 절대적인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현상에 대한 유지 성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상유지편향의 정도는 월 200만 원 이하의 가계소득을 가진 집단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계가 운영되는데 있어 적은 가계소득이기에 현실선호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현상유지편향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현상유지편향
		평균 (S.D)
성별	남자	3.10 (.90)
	여자	3.09 (.85)
	t값	-.06
학력	고졸이하	3.06 (.92)
	대졸이상	3.11 (.84)
	t값	-.38
결혼여부	미혼	2.94 (.74)
	기혼	3.14 (.90)
	t값	-1.48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3.11 (.89)
	소유	3.08 (.84)
	t값	-.18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3.08 (.85)
	전문직	3.18 (.97)
	t값	-.62
연령	29세이하	2.84 a
	30-39세	3.04 ab
	40-49세	3.23 b
	50세이상	3.26 b
	F값	3.58 *
월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46
	201-300만원	3.03
	301-500만원	3.08
	501만원이상	3.28
	F값	4.01 **

\* p < .05    \*\* p < .01    \*\*\* p < .001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전문직 종사 여부, 월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9>과 같다.

결혼 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미혼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혼자들이 재무정보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자들보다 기혼자들이 달성하여야 하는 재무목표가 더 다양하고 목표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무정보를 탐색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 비소유자들에 비해 주택 소유자들이 재무정보에 대한 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마련이라는 목돈이 들어가는 재무목표를 달성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여유자금을 운용을 위한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은 300만 원 이상의 월 가계소득을 가진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재무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정보탐색의 차이 검증

변인	구분	재무정보탐색
		평균 (S.D)
성별	남자	3.46 (.80)
	여자	3.44 (.79)
	t값	-.14
학력	고졸 이하	3.46 (.76)
	대졸 이상	3.44 (.82)
	t값	.14
결혼 여부	미혼	3.15 (.79)
	기혼	3.54 (.78)
	t값	-3.40**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3.32 (.75)
	소유	3.57 (.82)
	t값	2.50*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3.29 (.78)
	전문직	3.47 (2.62)
	t값	-.42*
연령	29세이하	3.23 a
	30-39세	3.47 ab
	40-49세	3.49 b
	50세이상	3.55 b
	F값	1.78
월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73 a
	201-300만원	3.40 b
	301-500만원	3.48 b
	501만원이상	3.49 b
	F값	.75*

\* p < .05    \*\* p < .01    \*\*\* p < .001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실행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실행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 여부, 연령, 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전문직 종사 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비전문직 종사자와 비교하여 재무관리실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분야의 재무관리행동 영역 즉, 소득에 대한 지출관리, 대출에 대한 부채상환,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은퇴를 위한 은퇴자금 마련 등 재무관리실행을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더 활발히 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가 40-50대 보다 더 활발한 재무관리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대가 절대적인 가계소득액은 40-50대보다 적을 수 있지만 가계소득을 관리하고 이를 통한 재무관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결과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재무관리실행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행동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재무관리실행
		평균 (S.D)
성별	남자	3.32 (.77)
	여자	3.45 (.77)
	t값	1.29
학력	고졸	3.40 (.89)
	대졸	3.39 (.72)
	t값	.09
결혼 여부	미혼	3.25 (.66)
	기혼	3.44 (.80)
	t값	-1.88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3.37 (.77)
	소유	3.42 (.78)
	t값	.50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3.21 (.81)
	전문직	3.42 (.76)
	t값	-2.32*
연령	29세이하	3.59
	30-39세	3.84
	40-49세	3.28
	50세이상	3.19
	F값	.94*
월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57 a
	201-300만원	3.40 b
	301-500만원	3.46 b
	501만원이상	3.49 b
	F값	4.60***

\* p < .05    \*\* p < .01    \*\*\* p < .001

#####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의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복지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주택소유 여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1>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적복지감이 더 높았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의 경제적복지감이 높았는데 이는 학력 차이에 따른 절대적인 소득액수가 대졸 이상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비소유자들과 비교했을 때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소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과 주택마련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령에서는 20-30대의 경제적복지감이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보이는 경제적복지감보다 높았다. 20-30대의 경우 가계생애주기에 있어 자녀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기에 그 이후 연령대들에 비해 현재 자신의 가계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11>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복지감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경제적복지감
		평균 (S.D)
성별	남자	3.28 (.86)
	여자	3.00 (.90)
	t값	-2.47*
학력	고졸	2.92 (.95)
	대졸	3.20 (.85)
	t값	-2.37*
결혼 여부	미혼	3.18 (.82)
	기혼	3.09 (.91)
	t값	.65
주택소유 여부	비소유	2.96 (.92)
	소유	3.25 (.86)
	t값	2.50*
전문직 종사 여부	비전문직	3.26 (.99)
	전문직	3.09 (.89)
	t값	-.95
연령	29세이하	3.56
	30-39세	3.84
	40-49세	3.04
	50세이상	3.09
	F값	.94*
월가계소득	200만원이하	2.52 a
	201-300만원	2.88 ab
	301-500만원	3.15 bc
	501만원이상	3.53 c
	F값	.74

\* p < .05    \*\* p < .01    \*\*\* p < .001

## 2. 재무관리영역상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 차이검증 결과

### 1) 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험감수도에 대한 집단을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고집단,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저집단, 고집단과 저집단 사이의 중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월생활비 항목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2>과 같다.

위험감수도가 높아질수록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계의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매달 지출할 수 있는 생활비 규모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 금액이 많을수록 기타 재무행동에서도 더 높은 재무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위험감수 저집단과 위험감수 고집단간의 월생활비 지출액 차이는 42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12>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평균/SD, 단위 : 천원)

변인	위험감수 저집단 (n=32)	위험감수 중집단 (n=156)	위험감수 고집단 (n=59)	F값
월지출 보험료	392 (346)	420 (482)	459 (484)	.14
부채총액	28,888 (65,659)	39,937 (164,265)	36,522 (64,339)	.03
월생활비	1,431 (927) a	1,942 (1,310) ab	2,847 (3,203) b	5.15**
월저축액	812 (641)	937 (845)	1075 (981)	.056
월부채상환액	555 (166)	290 (585)	255 (387)	.83
월가계소득	3,176 (1,027)	4,736 (5,426)	5,283 (3,000)	.51

\* P < .05, \*\* P < .01, \*\*\* P < .001

## 2)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상유지편향에 대한 집단을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고집단, 현상유지편향이 낮은 저집단, 고집단과 저집단 사이의 중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월지출보험료 항목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3>과 같다.

현상유지편향이 높을수록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월 보험료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편향 고집단은 월 52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있었고, 현상유지편향 저집단은 월 29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편향의 정도에 따른 월 보험료 지출규모 차이는 현상유지편향이 높을수록 현상에 대한 유지 심리에 따른 위험 전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13>현상유지편향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평균/SD, 단위 : 천원)

변인	현상유지편향 저집단 (n=35)	현상유지편향 중집단 (n=148)	현상유지편향 고집단 (n=64)	F값
월지출 보험료	291 (395)	365 (400)	523 (566)	3.36*
부채총액	51,250 (91,875)	28,303 (83,645)	53,868 (83,645)	.87
월생활비	1,875 (1,430)	2,105 (2,143)	2,077 (1,238)	.06
월저축액	1,018 (992)	893 (935)	1,051 (758)	.94
월부채상환액	312 (704)	253 (540)	305 (544)	.27
월가계소득	3,533 (3296)	4,336 (2678)	5,505 (7,284)	1.33

\* P < .05, \*\* P < .01, \*\*\* P < .001

### 3) 재무정보탐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재무정보탐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무정보탐색 실행도에 따라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재무정보탐색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는 집단을 재무정보탐색 고집단, 상대적으로 덜 활발히 하는 집단을 재무정보탐색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4>과 같다.

차이검증 결과 월지출보험료와 월저축액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재무정보탐색과 관련하여 정보탐색이 개인의 재무관리행동 이전 단계라고 간주하였을 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은 보험가입이나 기타 저축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재무정보탐색 고집단이 저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채상환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가계의 부채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14>재무정보탐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평균/SD, 단위 : 천원)

변인	재무정보탐색 저집단 (n=67)	재무정보탐색 고집단 (n=180)	t값
월지출 보험료	305 (316)	492 (535)	-2.94**
부채총액	19,917 (49,137)	41,159 (180,893)	-1.47
월생활비	1,862 (2,208)	1,244 (2,057)	-1.42
월저축액	731 (1,082)	692 (936)	-3.05**
월부채상환액	312 (600)	255 (513)	.78
월가계소득	3,773 (5,295)	2,726 (5,948)	-1.97

\* P < .05, \*\* P < .01, \*\*\* P < .001

#### 4) 재무관리실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결과

개인의 재무정보실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무정보실행 정도에 따라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재무정보실행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는 집단을 재무관리실행 고집단, 상대적으로 덜 활발히 하는 집단을 재무관리실행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15>과 같다.

차이검증 결과 월 지출 보험료와 월 저축액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재무정보탐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무정보탐색행동이 재무관리실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재무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단계인 재무관리탐색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표15>재무관리실행에 따른 집단간 가계 경제지표 차이검증

(평균/SD, 단위 : 천원)

변인	재무관리실행 저집단 (n=86)	재무관리실행 고집단 (n=161)	t값
월지출 보험료	341 (473)	473 (533)	-2.05*
부채총액	25,324 (46,231)	64,856 (177,555)	-1.05
월생활비	2,191 (2,031)	2,346 (1,466)	.07
월저축액	699 (1,098)	744 (906)	-3.48**
월부채상환액	273 (277)	596 (517)	-.06
월가계소득	4,026 (5,189)	4,310 (6,004)	-1.52

\* P < .05, \*\* P < .01, \*\*\* P < .001

3.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GFI=.870, AGFI=.826, NFI=.696, CFI=.787, RMR=.129, RMSEA=.08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성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16>과 같다.

<표16>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	표준화계수 (t값)	가설검증결과
위험감수도 → 재무정보탐색	0.83 (.93)	기각
현상유지편향 → 재무정보탐색	0.33 (3.01)**	기각
위험감수도 → 재무관리실행	0.13 (1.20)	기각
현상유지편향 → 재무관리실행	0.31 (2.53)*	기각
재무정보탐색 → 경제적복지감	0.11 (1.46)	기각
재무관리실행 → 경제적복지감	0.38 (3.30)***	채택
모형적합도	GFI=.870 AGFI=.826 NFI=.696 CFI=.787 RMR=.129 RMSEA=.084 Chi-square(df)=351.28(12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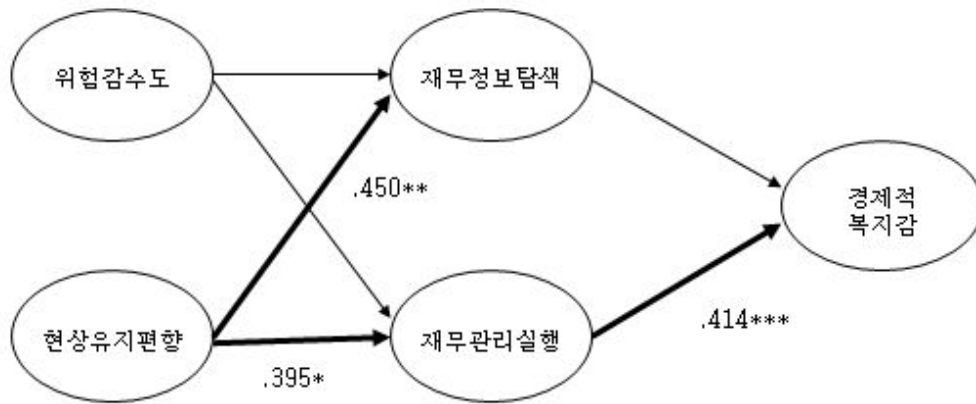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현상에 대한 유지를 선호할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의 적극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개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재무정보에 무관심하고 재무관리 행동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해석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성향은 재무관리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 현재 시점의 재무관리나 투자안에 대한 신뢰라고 보여 진다. 개인의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탐색도 적극적으로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재무관리를 위한 실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무관리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수적인 현상유지편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들에게 더욱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앞으로의 재무관리 대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무관리실행과 경제적복지감의 경우,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개인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상유지편향이 낮은 즉, 현재의 상태에 대한 유지 성향이 낮은 개인보다 더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재무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재무관리실행이 직접적으로 경제적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향후 개인의 재무관리행동의 개선이나 증진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복지감 더 나아가 재무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림5>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그림5>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가계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두드러진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재무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가계를 적절히 돌봐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가 재무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가계의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개인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가계의 경제지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위험감수도,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복지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면 가계 구성원인 개인들이 목표하는 재무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에 따른 가계 경제지표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영역상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대한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첫째,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학력, 전문직 종사 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의 위험감수도가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위험감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도가 높은 집단들의 경우 본인의 투자지식이나 정보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과 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50대 이상이 20-30대 보다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의 경우 월 가계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온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집단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20-30대 및 월가계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집단들이 재무정보탐색과 관리실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재무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결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전문직 종사 여부, 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주택 소유자, 전문직 종사자, 월가계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재무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 처한 상황과 재무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탐색을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 탐색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집단들이 스스로 재무정보탐색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전문직 종사 여부, 연령, 월가계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20-30대 연령, 월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개인의 재무관리실행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실행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재무관리 실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많은 개인들이 재무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학력, 주택소유 여부, 연령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성, 대졸 이상자, 주택 소유자, 20-30대 연령층의 경제적복지감이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제적복지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가 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제권을 관할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자신의 가계 수준에 대한 파악과 예측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비교에 있어 자신이나 본인의 가계의 실제 경제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재무관리영역의 심리적, 행동적 변인에 따른 집단 구분 후 실시한 가계경제지표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위험감수도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에서는 월생활비가 유의한 변인으로, 현상유지편향에 대한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에서는 월보험료지출금액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에 대한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동일하게 월보험료지출액과 월저축액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 경제적복지감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상유지편향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재무적인 무관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현상을 유지하는 성향 자체가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기각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현재 본인의 객관적인 재무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상유

지편향을 바탕으로 보다 긍정적인 재무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한 번 더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로 재무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 2. 제언

모든 개인은 재무적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면서 재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무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편향에 대한 파악과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실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이 궁극적으로 경제적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감수도, 현상유지편향, 재무관리행동(재무정보탐색, 재무관리실행), 경제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계경제의 주체로 살아가는 개인과 각 금융관련 기업들에게 개인의 재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인을 찾아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재무정보탐색과 재무관리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개인의 재무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감수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인 성향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행동을 제외한 다른 재무관리영역에서 위험감수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재무관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현상유지편향과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상유지편향이 높은 개인의 재무정보탐색 및 재무관리행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결국 이들의 선호성향을 어떻게 긍정적인

재무관리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투자행동중 하나인 펀드투자에 있어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개인과 가계의 현재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과정인 재무설계에 있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행위에 있어 지금까지 개인의 현상유지편향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재무관리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선택을 열어줄 수 있는 재무서비스 발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무관리실행이 경제적복지감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본 연구의 결과로도 재무관리행동은 개인의 경제적복지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영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각 재무관리행동이 재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복잡해진 금융환경 속에서 개인이 더 이상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를 도맡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영역의 세부화는 개인이 재무관리서비스를 기업에 위탁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계선자(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 권지현(2007). 소득위험이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금융투자협회(2010). 한미일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비교.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가계 재무 상태와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손지연, 최현자(2007).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도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 1-21.
- 김민정·최현자(2008).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23-40.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

- 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연정(1991). "체계론적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 복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박근주, 이기춘(200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특성, 소비자학연구, 제13권 1호, 45-72.
- 박세훈, 김문용(2007). 현상유지편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마케팅저널, 24(3), 149-171.
- 박진영(2004). 가계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지미, 안주엽(2007). 위험감수도와 자영업 선택, 한국경제의 분석, 13(1) 125-193.
- 손주영, 이연숙(1999). 도시가계의 가계자산투자행태 및 관련변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67-82.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예비적 자산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경제연구원, 10(3), 112-143
- 여윤경, 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정자,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  
현사.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형(2008).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 서울대학  
교 대학원.
- 임경묵(2004). 한국가계의 주식시장 참가 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 26(1), 37-69.
- 임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빈, 고보선(1995). 도시 신혼기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 생  
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2008). 도시주부 가계재무관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  
른 가계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1-403.
- 정운영(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81-108.
- 정은주(1992). 위험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 정은주, 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19-235.
-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

- 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 주소현(2009). 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FPbooks.
- 최경아(2000). 가계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 수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지은(2004). 자산수준별 소비자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행동 분석 : 1995년과 2000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지은, 정순희, 여운경(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 55-71.
- 최현자(2007).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3-46.
-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 한국경제학회(2011). 국민연금과 재정.
- 한국FP협회(2002). 투자설계.
- 한민희, 신상근, 안성아(2000). 금융고객의 위험태도와 위험대응구매행동, 경영학연구, 29(3), 337-352.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허경옥(2006). 소비자 투자와 보험.
- 홍향숙(1999).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 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9), 39-56.
- 홍향숙, 이종혜(1999). 개인, 가계,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

- 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2-24.
- Anderson, J.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jtelsmit, V. L. & Bernasek, A.(1996). Why do women invest differently than m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Barsky, R. B., Juster, F. T., Kimball, M, S. & Shapiro, M. D.(1997). Preference parameters and behavioral heterogeneity: An experimental approach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537-579.
- Bell, David E.(1982). Regret in Decision Marketing Under Uncertainty, *Operations Research*, 30(5), 961-981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taut, C., and Starr-McCluer, M. (2000). Household Portfolio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of Federal Reserve Board if Governors.
- Blume, M.(1975). *Journal of Finance*, VOL.XXX NO.3, 785-95.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36-162.
- Campbell, a. & Converse, P. E. & Rodger, W. L.(1976). The quality

-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Campbell, J. Y., Viceira. L. M.(2006). Strategic asset a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hn, R. A., Lewellen, W. G. Lease, R. C., Schlarbun, G. G.(1975). Individual Investor Risk Aversion and Investment Portfolio Composition, *The journal of finance*, 111(2), 605-619.
- Davis, A. M.(1993).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223-227.
- Davis, Elizabeth, P.,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e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 Fitzsimmons.V. S., T. K. Hira, J. W. Bauer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0), 257-274.
- Fowler, E. S.(1972).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family,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Friend, I., Blume, M. E. (1975). The demand for risky asse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5), 900-922.
- Furche, A., & Johnstone, D.(2006). Evidence of the endowment effect in stock market order placement,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7(3), 145-154.
- Gunnarsson, J. & R. Wahlund(1997).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in

- Sweden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201-233.
- Grable, J. E., Joo, S. H., & Adityavarman, R.(2003). Examining the link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financial risk taking of young professional, *Academy of Financial Services Proceeding*.
- Graham, J. F., & Stendardi, E. J.(2002). Gender differences in investment strategies : o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20(1), 17-26.
- Hafstrom, Jean L. & Dunsing, Marilyn 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119-132.
- Kahneman, D., Knetsch, J. L., & Thaler, R. H.(1990).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325-1348.
- Kahneman, Daniel & Amos Tversky(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march), 263-291.
- MacCrimmon, K. R.,& Wherung, D. A.(1990), Characteristics of risk taking executives, *Management Science*, 36(4), 422-435.
- Morin, R. A.,& Suarez, F.(1983), Risk aversion revisited, *The Journal of Finance*, 38, 1201-1216.
- Pigou, A. G.(1938). *The economics of welfare*(4th ed.), London: MacMillan.
- Ramaswami, S. N. Srivastava, R. K. &McInish T. H.(1992). "An

-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s and asset holding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 285-306, North Holland.
- Ritov, Ilana & Jonathan Baron(1995). Outcome Knowledge, Regret, and Omission Bi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4(2), 119-127.
- Samuelson, William & Richard Zeckhauser(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rketing, *Journal oh Risk and Uncertainty*, 1(March), 7-59.
- Simonson, Itamar(1992). "The influence of anticipating regret and responsibility on pyrchase deci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June), 105-117.
- Strumpel, B.(1973). B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B. Sheldon(Ed) Family ecomic behavior : Problems and perspects, Philadelphia : Lippincott, 69-125.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 Tucker, L. R., & Lewis, C.(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acher, J., & M. Yogo(2007). Why do household portfolio shares rise in wealth?, Working Paper.
- Wang, C. & Hanna, S. D.(2007). The risk tolerance and stock

- ownership of business owning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8(2), 3-18.
- Walson, C. O.(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 D.
- Walson C. Co.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h ri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 Warner, N. & Cramer, S.(1995). "Saving behaviors : first wave baby boome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57-67.
- Weagley, R. O.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Weckstein, H.(1962). Welfare criteria and changing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 133-153.
- Xiao, J. 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
- Xiao, J.J., Alhabeeb, M.J., Hong, G.S., Haynes, G.W.(200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307-325.
- Xiao, J. J.(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p.21-30.

Yao, R., Hanna, S. D., Lindamood, S.(2004). Changes in financial risk tolerance, 1983-2001, *Financial Services Review*, 13, 249-266.

#### 기타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이뉴스투데이(2012) 4월 17일자 '국민연금 고갈'.

이철용(2006).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LG주간경제.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 of Risk Tolerance and Status Quo Bias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Park, Kwi Young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showing noticeabl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dividuals are obligated to look after their household based on financial responsibilities. If not, households face great financial risk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is a need to examine differences in economic indices of households caused by such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In addition, financial satisfaction of individuals as members of households can be accomplished by analyzing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namely risk tolerance, status quo bia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according to individual'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find differences in economic indices of households according 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and ultimately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m.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Problem 1> What ar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earch Problem 2> What are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indices caused by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Research Problem 3> How is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isk tolerance, status quo bia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bove,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living in Seoul and nearby capital area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 (version 12.0) and structural equation program AMOS 17.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ere conduct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test hypotheses.

Looking at the major analysis results,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ofessional occupation were found as significant 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risk tolerance. Risk tolerance of males, college graduates and above, and professional workers was higher than other individuals.

Second, age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individual's status quo bias. Subjects in forties and fifties showed greater status quo bias than subjects in twenties and thirties. Individuals with monthly household income of 5 million won or above preferred status quo.

Third, marital status, house ownership, professional occupation,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individual's explor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individuals who are married, own a house, professional, and hav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above were found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explor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Fourth, professional occupation, age,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individual'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Professional individuals in twenties and thirties with monthly household income of 3 million won or above showed

highe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Fifth,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house ownership, and age were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individual's economic well-being. Males, college graduates and above, house owners, and subjects in twenties and thir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economic well-being in comparison to other individuals.

As a result of examining household economic indices among groups according 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financial management, first, monthly expenditure was found as significant variable in terms of risk tolerance. Monthly expenditure increased with increasing risk tolerance. Difference in monthly expenditure between low risk tolerance group and high risk tolerance group was 1.41 million won.

Second, monthly insurance fee was significant variable in terms of status quo bias. Monthly insurance fee increased with increasing status quo bias. Low status quo bias group spent 290 thousand won per month and high status quo bias group spent 520 thousand won per month on insurances.

Third, monthly insurance fee and monthly saving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erms of financial information exploration. Group with relatively more active explor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spent about 180 thousand won more than less active group, and less active group saved about 390 thousand won more than active group.

Fourth, monthly insurance fee and monthly saving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execution. Group that engaged more active financial management was found to spend 130 thousand won more on insurances compared to less active group. Also, active management group saved 450 thousand won more than less activ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isk tolerance, status quo bia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economic well-being, status quo bias was found to have a direct static influence on financial information explo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at is, increased status quo bias means more active explor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execution of financial management. In additi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ad a direct static effect on economic well-being.